복의 뿌리를 찾아 복 많이 받기

(엡1:1~14)

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후 61년에서 62년경, 약 2년 동안 사도바울이 로마감옥에 갇혀있게 됩니다.
두 번 갇히게 되는데,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같이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는 터키의 서쪽 끝에 에게 해가 있고, 에게 해 건너에 그리스반도가 있는데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서쪽 끝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가 해상교통 육상교통의 중심지였고, 로마제국으로서는 아주 상업적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만큼이나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흘러 들어와서 문화융합 현상이 나타나고, 또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그 당시 가장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런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 때 약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돌보고 했었죠. 그곳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복의 뿌리를 찾아 복 많이 받기>라고 한 번 정해 봤습니다.
에베소서를 흔히 교회론이 담겨있는 편지라고 얘기하는데, 복의 뿌리를 찾아서 복 많이 받는 사람들이 교인들이고,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2014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좀 늦었지만.
우리가 새해인사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새해에는 하시는 일 모두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주 노골적으로 인사를 해요, '새해에 돈 많이 버십시오!'
이 새해인사를 좀 신앙적으로 해보려고 많이 노력해보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입에 잘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는 소위 기복신앙적 분위기를 좀 피해보려고 다른 말들을 동원해보기도 하는데 기껏 해봐야 '하늘의 복을 누리세요!' 하는 정도, 여러분은 새해인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팔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문제는, 우리가 늘 삶에서 느끼는 것은 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 하늘의 복을 말하든지 이 세상의 오복을 말하든지 복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얼 말하는가 하면, 만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가 바로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만한 행운 또는 그런 좋고 만족할만한 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행복'이거든요.
근데 이 좋고 만족할만한 행운이 늘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어차피 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에도 행운이라는 말이 붙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이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될까?
가장 큰 이유가 참 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기복신앙이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추구해 들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구원받았다든지 하나님을 알게 됐다든지 하는 것을 보태지만, 다~ 이게 주변으로 밀려가고 있지요.
기복신앙의 핵심은 세상의 오복을 하나님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약속 아니겠어요?
이게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복의 뿌리를 한번 캐보는 겁니다.
진짜 복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뿌리의 현장에 가가지고 뿌리를 파악함으로써, 진짜 복을 많이 받고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진짜 복, 진짜 복을 기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짜 복을 기원하고, 하나님보다 복을 더 좋아하는 게 기복신앙의 문제이지, 기복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음이 약속해주는 게 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복 자체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기복신앙과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사실은 복이 본래 신령합니다, 복 중에 신령한 복이 있고 신령하지 않은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복! 하면 원래 신령한 거예요.
근데 왜 신령한 복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지상에서 육체적인 복을 사람들이 좋아하며 추구하며 살고 있으니까, 그 육체적인 복과 구분하기 위해서 동원된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를 들어, 천국에 올라갔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천국에는 들어가는 문에서부터 천국을 구성하고 있는 그 어느 것 하나, 만일에 천국에 이 지상에서처럼 먼지가 있다면 천국에서는 먼지도 복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에는 그 세계 자체가 신령하기 때문에 신령하다는 단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무엇인가를 갖게 되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한 거예요.
복이다 그러면 그 자체의 속성이 신령한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해있는 것은 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가.
신령한 복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복은 원래 신령하다, 그러나 신령한 복이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면서 이 땅에서 복을 찾기 때문인데, 복 자체가 원래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복이 없다, 이겁니다.
복된 삶이라는 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복된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늘에 속한 무엇인가를 갖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복은 신령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복이랄 게 없습니다.

오복을 말합니다, 제일 먼저 수(壽), 장수하는 것 이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부(富), 돈 이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이라는 건 원래 신령하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복이 신령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육체와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복은 하늘에 있는 거고, 하늘의 것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내 것이 되는 것, 이게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이 잘되는 것, 형통이라는 게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손이 많은 것,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아가 건강한 것,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건 무조건 다 복이 아닙니다.
복된 사람의 삶이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일 수는 있지만, 삶이 진행되기 위한 수단들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고 나면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신령한 것인데,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나한테 주어지는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이제 그 뿌리를 찾아가 봅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 마디로 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게 복의 뿌리입니다.
아,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모르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창세전이라고 했어요, 복의 뿌리는 창세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해도 달도 태양계도 우주도 없을 때,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장수와 돈 많이 버는 것, 출세하고 높은 관직을 얻는 것, 자손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창세전이니까.
복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 따위를 가지고 오래 사는 것 따위를 가지고 복이네 마네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복은 그런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구상이 되었던 거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창세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계시고 영원 전부터 주님께서 아들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두 분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하나님이 아들하나님 안에 들어가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하나님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아버지 안에 들어와 계신 아들하나님이 성령이시고, 아들하나님 안에 들어와 계신 아버지하나님이 성령님입니다.
사랑할 때 그런 말을 하지요, '내 안에 너 있다' 그거 사랑이 맞아요.
그렇게 아버지하나님 안에 아들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써 아버지에게 영원 전부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만족함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아들하나님 안에 아버지하나님이 들어가시면서 아들하나님의 만족함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너무 기뻐요.
이 기쁨을 누리다보니까 아버지하나님과 아들하나님께서 생각이 합의점에 도달합니다.
제 3의 인격체를 만들어서 이 기쁨에 참여하게 하자!
아버지하나님과 아들하나님 사이에 누리는 이 기쁨에 참여하게 하자!
이게 바로 복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복이랄 게 없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던 아버지와 아들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 기쁨과 만족함과 행복함, 그것에 참여하도록 제3의 인격체를 만들자고 했던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그 창조의 중심에 인간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주가 굉장하지요, 무한하고 광대한 우주, 정말 대자연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꾸로 대자연과 이 무한 광대한 우주가 인간이 창조되기 위한 무대 세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우주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개발은 무슨 개발? 달나라정도 간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를 위해서 엄청 돈을 쓰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늘에는 아름다운 별이 떠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다, 시를 지으면서 문학적으로 감상하며 노래하는 편이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뭘 알겠다는 겁니까?
뭘 어떻게 알겠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창조를 위한 배경이었던 거죠.
인간이 뭐예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 간에 있었던 기쁨과 만족에 참여하도록 지음을 받은 자들이고, 이게 신령한 복이라고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됨을 누리게 될 복이므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살게 되겠지만 그때는 신령한 복이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복이니까 복이라는 단어도 없지요, 하늘나라에서는 먼지도 복이니까 복이라는 말이 있을 필요도 없지요.
이 땅에서 복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은 복 아닌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복 아닌 것을 복으로 알고 있으니까 복이라는 말을 분명히 가리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되게 하십니까?
아들 되는 게 복인데,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기쁨에 참여하는 것인데,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예를 들면 쉬워요.
우리 아이가 가끔 반 아이들 두세 명, 많을 때는 네 명까지 데려올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고 오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엄마가 과자를 줍니다.
그러면 아들만 주는 법이 없어요.
아들과 같이 온 모든 아이들에게 아들에게 주는 모든 과자를 똑같이 줍니다.
이미 똑같이 줬을 때는 자기 양과 식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아들은 많이 주고 친구들을 적게 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우를 합니다.
더군다나 주말이나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서 일찍 끝나 급식이 없는 날에는 점심때가 되면 자장면을 시켜줍니다, 똑같이 시켜줍니다, 라면을 끓여도 똑같이 끓여줍니다.
걔네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아무 관계도 없고 처음 보는 애들인데, 우리 아들과 함께 집에 왔다는 것 때문에 아들에게 주려는 엄마의 마음이 똑같이 그들에게 가는 겁니다.
지금도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아버지하나님으로부터 아들하나님에게로 계속 사랑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그 아들하나님 옆에 붙는 거예요.
아들하나님 옆에 붙으면 아들하나님에게로 보내는 모든 아버지의 사랑이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돼서 이 기쁨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다보니까 더러워져버렸어요.
왜 더러워졌느냐?
복 아닌 것들을 복으로 알고 마음에 담는 바람에 하나님만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것들, 돈, 건강, 출세, 자식, 가정,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는 바람에 마음이 더러워져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러워진 이 상태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관계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면서 동시에 아들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할 수 있겠나, 해서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사건입니다.
십자가사건에 있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하나님과의 관계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될 뿐만 아니라, 아들하나님이신 주님과 연합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주는 사건이 십자가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뭡니까?
6절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딱딱한 예배에서 성가대가 찬양하는 그런 생각이 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은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아들이 소풍을 가요.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어요, 김밥을 안 먹으니까 도시락을 싸주는데, 몇 가지 반찬을 싸주는 중에 닭 강정을 만들어 싸줬습니다.
그런데 함께 밥 먹는 친구 중에 컵라면 두 개를 갖고 온 애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직장에 일찍 나가니까 도시락을 못 싸줘서 아이가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오고 컵라면 두 개를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열어놓은 반찬통에서 닭 강정을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어서 돌아버리겠다고 하더래요.
그 얘기를 하기에 '넌 못 먹었겠네?'
근데 자기는 못 먹어도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맛있지? 맛있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으면서 '그게 그렇게 맛있었을까?'

이러면서 다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자, 주님과 연합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주님 안에 아버지가 가득한 것처럼 내 안에도 아버지가 가득한 거예요.
닭 강정 먹을 때의 그 기쁨, 나타나는 거예요.
"야아!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 하나님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가 "그렇지, 그렇지,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와 연합해서 아들 된 위치에 서게 되면 이렇게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아, 주님! 정말 좋네요, 정말 좋아요!"
이게 바로 은혜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에서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게 아버지 자신입니다.
아버지 자신이 주어지는 게 은혜인데, 그게 영광스럽다는 의미가 뭡니까?
1등 했다는 거예요, 돈이 주어지는 것보다 더 기쁘게, 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게,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기쁘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복보다 더 큰 복인 걸 알게 되는 것, 이게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 허락하시는 당신 자신을 나도 아들로 여겨주셔서 당신 자신을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돈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배설물 같은 거예요.
대통령 되는 것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나도 이제는 대통령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의 사도바울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좋아하는 나를 보며 주님께서 '맞아! 그렇지? 너도 좋지? 내가 영원 전부터 누리던 기쁨이 바로 그거였어, 이 사람아! 너도 이젠 그런 기쁨을 갖고 영원히 사는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주님과 연합해서 아들의 위치에 서서 아버지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 돈 많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처럼 되세요, 라고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이 교인입니다.
대통령 되었다고 은근히 긍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제발 나처럼 되세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 해나가는 겁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의 뿌리가 창세전에 있습니다.
그 두 분이서 누리시던 기쁨과 만족에 참여시키겠다고 하시는 은혜로운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복이 출발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운 계획이 실현되었을 때 하나님아버지가 아들 되신 예수님 안에 가득한 것처럼 내 안에도 가득할 때 " 야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셨구나!" 하면 주님께서 장단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래서 아버지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치 닭 강정을 맛있게 먹었다는 친구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그렇게 맛있었을까?' 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으니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나도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주님도 하늘에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2014년에는 꽉꽉 채워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짜 복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진짜 복의 뿌리를 찾아 그 뿌리를 쥠으로써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령한 복으로 꽉꽉 채워진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